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석환, 정현정*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The Effects of Abuse, Parental Neglect, and Cyberbullying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

Seok-Hwan Kim, Hyun-Jung Jung*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요약 이 연구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실시한 '2020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고, 종속변수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 통제변수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er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비교 한 결과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점수가 높았고, 학교유형으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 학업성적으로는 '상'이 가장 높았고, 거주 지역으로는 '특별시·광역시'가 가장 높았다. 가족형태로는 '기타'가 가장 높았고, 경제상태로는 '여유로움'이 가장 높았다. 학대($B=-0.215$, $P<0.001$), 부모방임($B=-0.129$, $P<0.001$), 사이버폭력($B=-0.036$,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P<0.001$). 가정과 학교가 모두 자녀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학대, 방임, 사이버불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한다면 청소년 삶의 낮은 만족도에 의한 진로 정체감 감소, 우울증, 자살시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추 후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research)를 시도해 본다면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buse, parental neglect, and cyberbullying o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discussed possible solutions. This study used basic data from the '2020 Child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the whole country.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buse, parental neglect, and cyberbullying.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The control variables compris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For data analysis, the SPSS ver. 27.0 program was used. When the life satisfaction was compar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male students' scored higher than 'female students' by gender,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ored the highest by school type. The parameter 'Award' scored the highest in term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Special City/Metropolitan City' was the highest in the area of residence. The family type, 'Other'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subjects. In terms of economic status, 'relaxed' scored the highest. The scores relating to abuse ($B=-0.215$, $P<0.001$), parental neglect ($B=-0.129$, $P<0.001$), and cyberbullying ($B=-0.036$, $P<0.05$)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igher the scores of abuse, parental neglect, and cyberbullying, the lower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P<0.001$). If people at home and in school take an interest in children / students and come up with realistic measures to prevent abuse, neglect, and cyberbullying,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career identity, depression, and suicide attempts due to low levels of satisfaction among the youth. The causal relationship will be more clearly demonstrated if longitudinal research is attemp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Keywords : Violence, Indifference, Internet, Parenting Attitude, Quality of life

*Corresponding Author : Hyun-Jung Jung(Dongguk University)

email: aladin5535@hanmail.net

Received May 16, 2023

Revised June 9, 2023

Accepted July 7, 2023

Published July 31, 2023

1. 서론

통계청의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만 15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1위는 네덜란드(90%), 2위는 멕시코(86%), 3위는 핀란드(84%), 4위는 스위스(82%), 5위는 스페인(82%)이고, 한국(67%)은 27위로 30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1].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59점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은 집단,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 저소득 집단이 낮았다[2].

WHO[3]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정신건강이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삶의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며, 생산적이고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4]. 이러한 WHO의 건강 및 정신건강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결코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면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像)을 의미하는 진로정체감이 호전된다[5]. 하지만,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증가되고[6,7], 자살생각을 하며[8], 자살 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의 위험한 행태가 발생하기도 한다[9]. 즉,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6].

청소년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명시한다[10,11]. Huh(2004)[12]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 등 8개 유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 중 부모의 방임과 학대 정도가 강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매우 높았고[13], 이러한 방임과 학대 등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 심리, 생활신념과 연관이 있었다[14]. 부모의 민주적, 허용적, 수용적, 애정적인 긍정적 양육태도를 인지할수록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고[15,16] 반면에 부모에게 학대 경험, 방치 또는 처벌 등의 양육태도를 인지할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감소[17,18]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자주 접하는 휴대폰을 통한 사이버불링과도 연관이 있다[19,20]. 사이버불링은 사이

버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타인에 대한 위협이나 괴롭힘을 일컫는 용어이다[21]. 이러한 사이버불링은 사이버폭력으로 분류되어, 보통 학교 안의 사이버 폭력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카카오톡 왕따(카따)',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해 집단으로 욕설 퍼붓기(떼카),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만 혼자 남겨두고 모두 방을 나가버리기(방폭)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먼저 나갈 경우 가해학생이 끊임없이 대화방으로 초대해 괴롭히기도 하며(카톡감옥), 피해학생의 무선데이터를 테더링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갈취하는 '와이파이 셔틀', 게임 아이템을 상납하도록 강요하는 '게임 아이템 셔틀'도 사이버 폭력에 속한다[22]. 이러한 사이버불링을 견디지 못한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어지고[19], 우울증이 증가하거나[23] 삶의 만족도가 낮아져 자살생각을 하기도 한다[20].

즉,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대, 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청소년의 보호자나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사이버 등 사회 환경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해결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의 '2020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2022년 10월 06일에 공개된 2020년도 데이터를 제공받아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연관된 문항을 선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8,248명이었고,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6문항(성별, 학교유형, 학교성적, 거주지역, 가족형태, 경제상태), 학대 4문항, 부모방임 5문항, 사이버불링 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2.1 학대 :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학대'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

지하는 학대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입한 결과로 ‘최근 1년동안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또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체벌, 욕설 등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의 질문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인 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의 범위는 4점부터 2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2 부모방임 :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방임’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부모방임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입한 결과로 ‘최근 1년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의 질문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인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의 범위는 5점부터 2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3 사이버불링 :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이버불링’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이버불링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입한 결과로 ‘최근 1년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의 질문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인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의 범위는 5점부터 2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4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입한 결과로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를 표시해 주십시오’의 질문으로 Likert식 10점 척도인 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5 일반적 특성 : 통제변수

이 연구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함이므로 삶의 만족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통제변수로만 이용을 하되, 기본적인 특성인 성별(여학생, 남학생), 학교유형(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적(상, 중, 하), 지역규모(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읍지역, 면지역), 가족 유형(양부모, 한부모, 조손, 기타), 경제상태(여유로움,

보통, 어려움) 등 6가지를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2.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PC+Version 27.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산출하였고, 집단간의 차이 검정을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과 종속변수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간에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삶의 만족도에 순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지역규모, 가족유형, 경제상태에 대한 빈도를 구하였다(Table 1). 성별로는 남학생(4,236명, 51.4%)이 더 많았고, 학교유형으로는 고등학교(2,919명, 35.4%)가 가장 많았다. 학업 성적으로는 중(3,704명, 44.9%)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 지역으로는 중소도시(3,931명, 47.7%)가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로는 양부모(7,429명, 90.1%)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상태로는 여유로움(4,657명, 56.5%)이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pec.	N	%
Gender	Boy	4,012	48.6
	Girl	4,236	51.4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2,668	32.3
	Middle School	2,662	32.3
	High school	2,919	35.4
Academic performance	Upper	2,611	31.7
	Middle	3,704	44.9
	Lower	1,933	23.4
Residence	Special Metropolitan	3,215	39.0
	Small medium city	3,931	47.7
	Eup area	663	8.0
	Myeon area	439	5.3
Family type	Adoptive parents	7,429	90.1
	Single parent	596	7.2
	Grandparents	90	1.1
	Etc.	133	1.6
Economy state	Afford	4,657	56.5
	Commonly	2,989	36.2
	Difficulty	603	7.3
	All	8,248	100.0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비교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지역규모, 가족유형, 경제상태에 대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구하였다(Table 2). 성별로는 여학생(6.69점)보다 남학생(7.39점)이 더 높았고($p<0.001$), 학교유형으로는 초등학교(7.82점)가 가장 높았다($p<0.001$). 학업성적으로는 상(7.67점)이 가장 높았고($p<0.001$), 거주지역으로는 특별시·광역시(7.07점)가 가장 높았다($p<0.001$). 가족형태로는 기타(7.20점)가 가장 높았고, 경제상태로는 여유로움(7.57점)이 가장 높았다($p<0.001$).

Table 2. Average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Spec.	Mean	t/F	P
Gender	Boy	6.69	-14.408	<0.001
	Girl	7.39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7.82	276.295	<0.001
	Middle School	6.86		
	High school	6.51		
Academic performance	Upper	7.67	289.572	<0.001
	Middle	7.08		
	Lower	6.13		
Residence	Special Metropolitan	7.07	1.499	<0.001
	Small-medium city	7.06		
	Eup area	6.90		
	Myeon area	6.94		
Family type	Adoptive parents	7.11	30.057	<0.001
	Single parent	6.22		
	Grandparents	7.15		
	Etc.	7.20		
Economy state	Afford	7.57	409.374	<0.001
	Commonly	6.58		
	Difficulty	5.35		
	All	7.05		

3.3 연구대상자의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 삶의 만족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Table 3). 사이버불링은 학대($r=0.308$)와 정(+)의 상관관계이고, 부모방임은 학대($r=0.319$), 사이버불링($r=0.308$)과 정(+)의 상관관계이며, 삶의 만족도는 학대($r=-0.225$), 사이버불링($r=-0.110$), 부모방임($r=-0.200$)과 부(-)의 상관관계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participants' abuse, parental neglect, Cyberbullying, and life satisfaction

Spec.	Abuse	Parental neglect	Cyberbullying
Abuse	1.000		
Parental neglect	0.139**	1.000	
Cyberbullying	0.330**	0.308**	1.000
Life Satisfaction	-0.225**	-0.200**	-0.110**

* $p<0.05$, ** $p<0.01$, *** $p<0.001$

3.4 연구대상자의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Table 4). Model 0에서는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을 투입하였으며, Model 1에서는 독립변수인 학대를,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인 학대와 부모방임을,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인 학대, 부모방임과 사이버불링을 모두 투입하였다. Model 0에서는 지역을 제외한 성별 중 남학생($B=0.644$), 학교유형 중 중학교($B=-0.715$), 고등학교($B=-0.804$), 성적 중 중($B=-0.338$), 하($B=-0.912$), 가족유형 중 한부모($B=-0.259$), 경제상태 중 보통($B=-0.660$), 어려움($B=-1.709$)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설명력은 17.0%이었다. 이는 성별이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유형은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의 삶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성적은 상에 비하여 중, 하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가족유형은 양부모에 비하여 한부모, 조손, 기타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경제상태는 여유로움에 비하여 보통, 어려움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1에서는 학대($B=-0.25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1.7%이었다. 이는 학대가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2에서는 학대($B=-0.221$), 부모방임($B=-0.13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2.6%이었다. 이는 학대와 부모방임이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학대($B=-0.215$), 부모방임($B=-0.129$), 사이버불링($B=-0.036$)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2.6%이었다. 이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Effects of Abuse, Parental Neglect, and Cyberbullying of Participants o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Spec.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B	P	B	P	B	P	B	P	
Gender	Girl	1.000					1.000		
	Boy	0.644	<0.001	0.707	<0.001	0.701	<0.001	0.705	<0.001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1.000					1.000		
	Middle School	-0.715	<0.001	-0.709	<0.001	-0.700	<0.001	-0.697	<0.001
	High school	-0.804	<0.001	-0.856	<0.001	-0.853	<0.001	-0.855	<0.001
Academic performance	Upper	1.000					1.000		
	Middle	-0.338	<0.001	-0.387	<0.001	-0.369	<0.001	-0.370	<0.001
	Lower	-0.912	<0.001	-0.912	<0.001	-0.871	<0.001	-0.869	<0.001
Residence	Special Metropolitan	1.000					1.000		
	Small/medium city	-0.006	0.905	-0.025	0.593	-0.011	0.820	-0.009	0.855
	Eup area	0.063	0.471	-0.023	0.787	-0.021	0.800	-0.022	0.792
	Myeon area	0.061	0.551	0.063	0.527	0.087	0.382	0.085	0.389
Family type	Adoptive parents	1.000					1.000		
	Single parent	-0.259	0.003	-0.249	0.004	-0.179	0.036	-0.178	0.037
	Grandparents	-0.012	0.955	0.120	0.563	0.141	0.495	0.158	0.445
	Etc.	-0.211	0.233	-0.152	0.378	-0.141	0.410	-0.121	0.480
Economy state	Afford	1.000					1.000		
	Commonly	-0.660	0.001	-0.630	0.001	-0.628	0.001	-0.630	<0.001
	Difficulty	-1.709	0.001	-1.515	0.001	-1.472	0.001	-1.471	<0.001
Abuse				-0.258	0.001	-0.221	0.001	-0.215	<0.001
Neglect						-0.136	0.001	-0.129	<0.001
Cyberbullying								-0.036	0.029
Intercept		7.978	0.001	9.287	0.001	9.891	0.001	10.010	<0.001
Prob > P			0.001		0.001		0.001		<0.001
Adj R-squared			0.170		0.217		0.226		0.226

4. 논의

이 연구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8,248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학대를 받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일부지역의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도 가정 내 학대경험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켰으며, 중학생 3학년 1,8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24]에서도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Kim(2021)[25]의 연구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아동학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26]. 이는 학대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 한다.

둘째, 부모방임에 노출될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Woo(2017)[27]는 중학교 1학년 2,0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방임은 자아탄력성을 완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총 1,005명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부모의 방임양육방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렸고[28], 낮아진 삶의 만족도는 학업중단까지 이르게 하였다[29]. 이는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점을 제시한다.

셋째, 사이버불링이 심각할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Shin & Hong(2022)[30]의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은 우울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낮추었고,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감소시켰다[31]. 이 또한 사이버불링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점을 지지한다.

넷째,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순차적으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많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27,32]. 또한, 교사폭력 등 교사의 학대는 청소년 우울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모방임의 매개효과가 있었고[33], 이러한 학대[34] 및 방임[23] 피해 경험은 사이버폭력피해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낮았다[35].

부모 또는 교사 등 보호자의 학대는 청소년의 우울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개된 방임의 조절효과가 있다[33]. 이러한 방임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지는데[23],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사이버불링에 노출되기 쉬워지며[19,36],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사이버불링이 증가[36]되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35].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 감정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구성[37]되는 것으로, 몸소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인간관계, 다양한 활동, 개인의 역량 등을 통합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관적 평가[38,39]이다.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순응의 기준이자 부정적 경험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 감성적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40,41], 앞으로의 삶의 질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42,43]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학대, 방임, 사이버불링 등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가 되면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파괴[5]되며, 우울증 증가[6,7,23,30,33]와 자살생각[8] 또는 자살시도[9]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지낼 자격이 있다. 하지만, 보호자들만의 기준과 그들의 일방적인 양육방식 및 그릇된 사이버세상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급감하여 불안정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의 정서를 고려하여 학대와 방임을 줄일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가정과 학교에게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차후 연구는 학대, 방임, 사이버불링과의 관계에서 매개 또는 조절하는 변수를 가미하여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추 후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research)를 시도해 본다면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2차자료라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함의라 할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순차적으로 악영향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 학교 등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에서 현실적인 보건교육 등의 방안을 제공한다면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높여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증과 자살시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Quality of Lif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2022 Report, Daejeon: Statistics Korea, 2022. [cited 2023 April 27],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1010200&bid=11887&tag=&act=view&list_no=422754&ref_bid=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Youth Comprehensive Survey,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cited 2023 April 27],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sn=704797
- [3] WHO,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1948, [cited 2023 April 27], Available From: <http://www.who.int/>
- [4] WHO, Mental health: Strengthening our response (Fact Sheet), 2016, [cited 2023 April 27], Available From: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20/en/>
- [5]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3rd edn), 153-154, New York: Prentice-Hall, 1997.

- [6] R. Gilman, E. S. Huebner,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5, No.3, pp.293-301, 2006.
DOI: <https://doi.org/10.1007/s10964-006-9036-7>
- [7] U. K. Moksnes, A. Løhre, M. Lillefjell, D. G. Byrne, G. Haugan, "The association between school stres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s a potential media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25, No.1, pp.339-357, 2016.
DOI: <https://doi.org/10.1007/s11205-014-0842-0>
- [8] M. J. Song, "The influence on suicide thought of attitude to death and satisfaction about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II: Including difference analysis between 2016 and 2011",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5, No.2, pp.95-108, 2016.
DOI: <https://doi.org/10.22839/adp.2016.5.2.95>
- [9] S. E. Lee, E. J. Lee, O. K. HAM, "Effects of Suicidal Attitudes, Perception of Life, and Depression on Adolescents' Suici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7, pp.305-315,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7.305>
- [10] F. Petito, R. A. Cummins, "Quality of Life in Adolescence: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Parenting Style, and Social Support", *Behaviour Change*, Vol.17, No.3, pp.196-207, 2012.
DOI: <https://doi.org/10.1375/bech.17.3.196>
- [11] S. M. Suldo, E. S. Huebner,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66, No.1-2, pp.165-195, 2004a.
- [12] M. Y. Huh,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2, No.2, pp.170-189, 200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d=ARTO02246202>
- [13] J. H. Park, Y. M. Lim,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seness to Teacher and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Neglect on Adolescent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1, No.3, pp.87-110, 2014.
- [14] T. S. Choi, J. K. Kim, "The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and Perceived Parental Attitude on the Depression of School-Aged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12, pp.595-617, 2015.
- [15] H. Cheng, A. Furnham,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5, No.1, pp.1-21, 2004.
DOI: <https://doi.org/10.1023/B:JOHS.0000021704.35267.05>
- [16] S. W. Plunkett, C. S. Henry, L. C. Robinson, A. Behnke, P. C. Falcon. III,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16, No.6, pp.760-772, 2007.
DOI: <https://doi.org/10.1007/s10826-006-9123-0>
- [17] E. A. Kim, M. Y. Bae,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Parenting Style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9, pp.155-176,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09.23.9.155>
- [18] B. K. Park, P. S. Noh,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Abuse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Life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10, pp.181-203,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10.23.10.181>
- [19] S. Y. Ko, S. M. Bae, "The influence of neglectful parenting on cyberbullying victim of early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life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9, pp.203-224, 2018.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8.09.25.9.203>
- [20] Y. R. Shin, S. G.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ec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Vol.15, No.1, pp.105-133, 2022.
- [21] J. W. Patchin, S. Hinduja,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Vol.43, No.2, pp.727-751, 2011.
DOI: <https://doi.org/10.1177/0044118X10366951>
- [22] N. Y. Kim, Kata, Teca, Wi-Fi Shuttle... There is no escape from 'SNS prison', JoongangSUNDAY, c2021 [cited 2021 Feb 20], Available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6070#home> (accessed Jun. 8, 2023)
- [23] M. S. Lee, D. G. Kwack, "Effect of neglec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n cyberbullying victims: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Vol.18, No.3, pp.65-80, 2022.
- [24] Y. G. Ku, M. O. Park, "Influence that the Child Abuse by Their Parents Affects the Adolescents' Life-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orial Effect on Peer Attachment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8, pp.186-195,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8.186>
- [25] K. H. Kim, "The Effects of Perceived Child Abuse through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Comparison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Public policy review*, Vol.35, No.1, pp.27-55, 2021.

- DOI: <https://doi.org/10.17327/ippa.2021.35.1.002>
- [26] J. Y. Ban, J. M.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tigma between Out-of-School Youths' Perceived Parental Abuse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n Application of Multiple-group Analysis across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8, No.1, pp.341-366, 2021.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1.01.28.1.341>
- [27] J. H. Woo, "The effect of parental neglect, abuse on middle school children's life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569-579,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569>
- [28] E. J. Jo,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Neglect and Life Satisfaction at Community Child Cent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21, Vol.12, No.5, pp.2059-2072.
- [29] Y. M. Cho, K. W. Cho, Y. S. Lim, "Effects of Parental Neglect in the Multicultural Family on the Risk of Adolescents' School Dropout: The mediation effect of life satisfaction", *Youth Welfare Research*, Vol.23, No.4, pp.103-121, 2021.
DOI: <https://doi.org/10.19034/KAYW.2021.23.4.05>
- [30] S. R. Shin, S. P. Hong, "A Study on the effect of crime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Vol.18, No.2, pp.99-112, 2022.
- [31] J. Y. Kim, "Stud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8, pp.477-485, 2020.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0.12.14.8.477>
- [32] A. R. Han,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and Abuse, Service Usefulness of Community Children Center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n Low Income Family: Medi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7, pp.29-54,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06.24.7.29>
- [33] J. K. Jeon,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s of Parental Negl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Teacher Violenc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8, 2022.
DOI: <https://doi.org/10.5392/JKCA.2022.22.08.492>
- [34] J. H. Yun, S. H.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and Family Stress on Children's Cyberbullying and Determinant: Focused o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4, pp.1781-1796, 2020.
- [35] A. Arnarsson, J. Nygren, M. Nyholm, T. Torsheim, L. Augustine, Y. Bjereld, I. Markkanen, C. W. Schnohr, M. Rasmussen, L. Nielsen, P. Bendtsen,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among Nordic adolescents and their impact on life satisfac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48, No.5, pp.502-510, Jul 2020.
DOI: <https://doi.org/10.1177/1403494818817411>
- [36] S. C. Lee, S. K. Lee, Y. G.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ative Nurturing Attitude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Forum For Youth Culture*, Vol.0, No.65, pp.93-127, 2021.
DOI: <https://doi.org/10.17854/ffvc.2021.01.65.93>
- [37] B. Fredrickson, M. S. Woo, S. Y. Choi, Let's the positivity within me dance. Gyeonggi: Book Publishing Mulpure, pp.12-410, 2015.
- [38] F. Fujita, E. Diener,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8, No.1, pp.158-64, 200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8.1.158>
- [39] C. L. Proctor, P. A. Linley, J. Maltby,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0, No.5, pp.583-630,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902-008-9110-9>
- [40] R. Gilman, S. Huebner,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18, No.2, pp.192-205, 2003.
DOI: <https://doi.org/10.1521/scpq.18.2.192.21858>
- [41] S. M. Suldo, E. S. Huebner,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19, No.2, pp.93-105, 2004b.
DOI: <https://doi.org/10.1521/scpq.19.2.93.33313>
- [42] C. J. Ferguson, M. E. Muñoz, A. Garza, M. Galindo, "Concurrent and Prospective Analyses of Peer, Television and Social Media Influences on Body Dissatisfaction, Eating Disorder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3, No.1, pp.1-14, 2014.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2-9898-9>
- [43] R. Saha, E. S. Huebner, S. M. Suldo, R. F. Valois,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Vol.3, No.2, pp.149-165, 2010.
DOI: <https://doi.org/10.1007/s12187-009-9050-x>

김 석 환(Seok-Hwan Kim)

[중신회원]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 (보건학석사)
- 2014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보건학박사)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고려대학교 부설 보건과학연구소
- 2022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민간보험, 보건교육, 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의무기록

정 현 정(Hyun-Jung Jung)

[정회원]



- 2015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병원경영학 (보건학석사)
- 2023년 2월 :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관리학과 (보건학박사)
- 2010년 2월 ~ 2016년 2월 : 구포부민병원 보험심사과
- 2023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건강보험, 질병분류, 암등록,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